L'ARBRE 27

집의 본질

Jung Jidon **소설가 정지돈**

글을 쓴 **정지돈**은 2013년
≪문학과사회≫ 신인문학상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젊은작가상 대상과 2016년
문지문학상을 수상했다.
2018년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건축전 한국관 작가로 참여했다.
소설 및 에세이, 비평 등을 쓴다.
여러 권의 책을 냈다.

일본 전후 세대의 대표적 미술가 아라카와 슈사쿠가 파트너인 매들린 긴즈와 만든 미타카시의 아파트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형태이다. 애들 장난감 블록처럼 보이는 들쑥날쑥한 외관에 색상은 현란하고 구조는 난삽하다. 집 중앙에 난데없이 부엌이 등장하고 창문은 부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바닥은 울퉁불퉁하다. 그러나 예술가의 기행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슈사쿠와 긴즈의 건축 프로젝트는 '천명반전'이라는 매우 진지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이다. 천명반전은 죽음이라는 운명(천명)을 반전시킨다는 의미이다. 어떻게? 생명을 연장하는 집에 사는 것을 통해서.

농담 같기도 하고 광기 같기도 한 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뉴욕에 '생명 연장의 집'을 짓고 천명반전재단을 설립했다. 그들은 정말로 믿었다. 적절한 환경, 다시 말해 제대로 된 집에 산다면 인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흥미로운 것은 그들이 생각한 생명 연장의 집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살기 좋은 집과 정반대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은 안락하고 편리하고 고요한 환경에서 살기 원한다. 그러나 천명반전의 집은 불편한 걸 넘어 위험하기까지 하다. 하우스 투어를 할 때 가이드가 헬멧을 건네며 발목이 삐지 않게 조심하라고 경고할 정도이니 말이다. 생명이 연장되기는커녕 원래 있던 생명까지 뺏길 판국이다.

그러나 바로 이런 외부 환경의 자극이 우리를 깨어 있게 한다고 슈사쿠와 긴즈는 믿었던 듯하다. 익숙한 것들을 깨부수는 것을 넘어 익숙해지는 일 자체를 없애버리기, 질서가 아니라 혼돈, 균형이 아닌 불균형을 통해 신체와 정신을 끊임없이 자극하기. 그런 면에서 슈사쿠와 긴즈의 현란한 집은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건축계의 오래된 모토를 가장 잘 수행하는 건지도 모른다. 문제는 과연 이 형태가 정말 그 기능(생명 연장)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거지만.

그러니 문제는 역시 형태와 기능이다. ≪건축십서≫의 비트루비우스(Vitruvius)부터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는 형태와 기능의 문제는 역사상 거의 모든 건축가를 사로잡았다. 슈사쿠와 긴즈는 역사의 끝에 위치한 극단적인 사례일 뿐이다. 르코르뷔지에가 "집은 살기 위한 기계이다"라고 했다면, 두 사람은 "집은 '영원히' 살기 위한 기계이다"라고 했다고 할까.

불과 20세기 후반까지도 특정 형태가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는 수수께끼였다. 높은 층에 사는 것은 중추신경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층고가 높으면 창의력에 도움이 될까? 통유리창은 정서 발달과 관계가 있을까? 건축가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아는 바가 없었지만 아는 것처럼 행동하고 설계해야 했다. 20세기 건축의 걸작인 빌라 사보아와 판스워스 하우스가 휘말린 스캔들을 떠올리면 건축가들이 그들의 의도와 얼마나 멀리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르코르뷔지에는 자신이 무엇을 의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는 모순 덩어리였다. 그는 집은 살기 위한 기계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건축은 기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한다. 의자는 앉기 위한 기계라고 말하는 동시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의자에는 영혼이 있어야 한다고 호통을 친다. 그가 말하는 영혼은 단지 도구적 실용성이 아닌 숭고한 아름다움의 존재 여부였다. "한 사물이 어떤 필요에 대응할 때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 "건축의 목적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다."

결국 르코르뷔지에의 형태는 기능을 따르지 않았다. 사실 그는 기능에 가장 맞는 형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게 그의 잘못만은 아니다.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특정 공간에서 인간의 신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할 수 없었으니까.

지금은 다르다. 현대의 신경 과학은 공간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다. 서재 디자인이 창의성과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전두엽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침실 환경과 정신 건강의 관계, 주방 형태와 흑색질의 호르몬 분비 연관성 따위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있다. 진정한 의미에서 기능을 따르는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 위에서 말했듯 르코르뷔지에는 모순 덩어리였지만 건축의 걸작은 그 모순과 무지 때문에 탄생할 수 있었다. 천명반전의 집 역시 마찬가지다. 집은 자신의 기능을 다하지 못했지만(슈사쿠는 2010년에, 긴즈는 2014년에 죽었다), 기능에 대한 오해가 독특한 형태와 매력의 집을 낳았다.

결국 우리가 집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 나아가 삶에서 원하는 건 무엇일까? 기능이라는 말로 압축될 수 있는 실용성은 아닐 것이다. 식사가 생존을 위해 원료를 투입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삶을 영위하는 집에는 규정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렇다고 아름답기만 하고 불편한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기능을 원하는 동시에 형태를 원한다.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효율을 추구하면서도 때로는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 여유롭게 표류하길 원한다. 미래의 집은 둘 모두를 수용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과학은 그 여정을 조금 더 가능한 영역으로 끌어왔다. 예전보다 더 높은 해상도로 형태와 기능의 관계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선명함이 우리를 어떤 집으로 이끌지 두고 봐야겠지만 말이다.

“Everything essential and great originated from the fact that the human being had a home.”

Martin Heidegger

동양의 사유 체계에서 가장 큰 세계를 ‘집(우주 宇宙)’이라 부릅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담는
가장 큰 그릇이 집이며,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커다란 집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집을 더 이상 재화의 가치로 셈할 수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라브르 27은 ‘집’의 본질, ‘집다운 집’의 의미에 대해 생각합니다.
집이야말로 인간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의 기원임을 확신합니다. 집다운 집은 개인의 내면세계를
고양시키고, 삶의 경험을 확장하며, 자기 발견과 성장을 돕는 장소입니다.
이는 ‘주거의 Luxury는 자연과의 연결이다’라는 라브르 27의 생각과 그대로 연결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인 나무처럼 자연의 단순함과 진정성이야말로 내면세계와 외적 세계를 고양시키는
Luxury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나는 옆자리에 늘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생명이 깃들기 바라는 Biophilia의 철학이
라브르 27에 스며 있습니다.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형상화한 건축, 한국적 정서와 문화를 배태한 입지, 이를 뒷받침하는 다학제적 통찰,
현재의 도시에 현실화한 환경 계획 등…. 이 모든 것은 터의 무늬, 즉 터문(墟紋)을 가꾸는 일입니다.
바로 대지에 쓰는 시입니다.

라브르 27의 자연 친화적 디자인을 통해 우리는 도심 속 나만의 자연을 감각합니다. 주거 공간 깊숙이 자리한
정원에서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체감하고, 태초의 지형을 닮은 산책로를 걸으며 땅을 느낍니다.
바람과 물과 빛이 흐르는 건축 공간 속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립니다.

Private Nature

바로 라브르 27이 희구하는 집, ‘집다운 집’의 본질입니다.

Neuroarchitecture

Opening the Door to a Healthier Tomorrow

KAIST 정재승

집에 머무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기반으로 공용 주택을 디자인한다면 어떨까? 라브르 27은 정재승 교수와 함께 신경건축학을 적용해 집의 '본질'에 대한 철학과 가치를 세웠다. 신경건축학이란 신경 과학(Neuroscience)과 건축학(Architecture)의 합성어로, 공간이 인간 뇌의 인지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인간이 어떤 공간에서 안정감과 행복감을 느끼는지, 어떤 공간에 있을 때 불쾌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지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 이를 설계의 근거로 삼는다. 2003년 미국에서 신경 과학자와 건축가를 중심으로 '건축을 위한 신경 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Neuroscience for Architecture, ANFA)'라는 학회를 만들면서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가 탄생했다. 2011년부터 국내에서 신경건축학 연구회를 만들고 이끌어온 KAIST 뇌인지과학과 및 융합인재학부 정재승 교수는 국내 신경건축학 분야의 선구자다.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1

1 넓은 테라스를 통해 안과 밖이 하나 되는 공간을 구현한 라브르 27의 테라스하우스는 집 안에서도 자연과 소통할 수 있다. **2** 라브르 27은 신경건축학 관점을 디자인 설계에 도입한 국내 첫 고급 주거 단지이다. 정재승 교수는 이를 통해 더욱더 안온하고 행복한 주거 공간을 구현했다고 한다.

"라브르 27은 신경건축학 관점을 디자인 설계에 도입한 국내 첫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설계 초기 단계부터 신경건축학 관점의 디자인 자문으로, 라브르 27의 마스터플랜과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참여했습니다."

이전까지 라브르 27 같은 고급형 주거 단지 혹은 주택은 대개 권위를 상징하고, 사회적 성공을 강조했기 때문에 공간 자체가 위계적이었죠. 저는 고급형 주거 단지는 이와 완전히 반대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충분한 사회적·경제적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이곳에서, 왜, 같이 살아야 할까요? 그들은 집의 본질에 충실한 공간을 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생활이 보호되고 안전한 삶을 누리면서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것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 말이지요. 라브르 27의 마스터플랜은 그런 가치를 설계에 잘 담아달라고 각별히 부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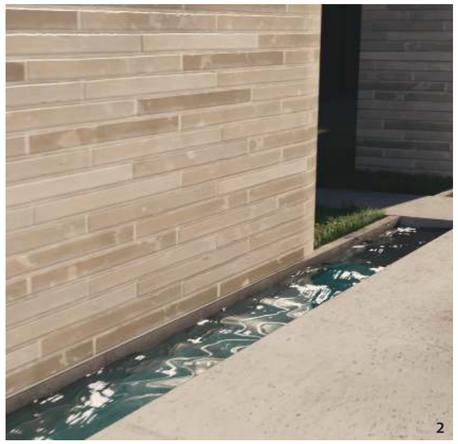
"'완전한 안락에의 기대'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집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한 세 가지 가치로 '안전' '성장' '관계'를 내세웠습니다."

인간은 집을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밖에 나가서는 여러 활동을 왕성하게 하며 뇌를 잔뜩 쓰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각별한 요구를 하죠. 첫째로 안전하기를 희망합니다. 다른 사람과 접촉을 최소화하고 안전하며 사생활이 보호되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가 적절하기를 희망하고, 이를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모순된 집에 관한 욕망을 신경건축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신경건축학을 바탕으로 디자인의 근거가 되면서 의사 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디자인 원칙 여덟 개를 정립했고, 스물한 개의 가이드라인, 일흔다섯 개의 디테일을 제시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른 사람과 부딪치지 않으면서도 자연 안에서 천천히 느린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특별한 공동체를 만드는 커뮤니티, 가족 간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는 집 안 구성, 건축가와 함께 실내디자인을 해 집마다의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개성적인 공간 등을 설계하도록 제시했습니다. 공용 공간을 예로 들면, 사우나나 운동 시설도 개인이 예약제로 혼자 혹은 가족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며 어떻게 공용 공간을 활용할지 생각한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이 안에서 이웃이 서로 수평적으로, 동등한 입장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기를 바랐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위계를 생각하고 상대와 비교하는 것이 편안한 집을 만들어주지는 못하니까요.

2



1 분절된 매스의 조합으로 주변과 조화로움을 유도한 라브르 27의 외관. 이웃에게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단지를 디자인한 것 또한 신경건축학에서 찾은 디자인 원칙이다. **2** 단지에 마련한 물길. 물소리 같은 자연의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

“세대마다 평수와 위치 및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다른데, 이는 각 세대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분류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 제시한 건 펜트하우스조차 없고 모두가 하늘을 공유하는 공간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평수도 조금 다르고 위치도 다르죠. 하지만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하는 것입니다. 부를 드러내지 않는 공간을 만들려고 애썼고, 되도록 모든 사람이 공용 공간을 잘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곳에 입주하는 분들은 내 삶에 충실하고 가족과의 관계에 집중하면서도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함께 이 커뮤니티에 사는 동료로서, 이웃 주민으로서 관계를 맺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기를 희망했지요. 실제로 그것이 건축에도 잘 반영되었습니다.

“집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초고층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대개 럭셔리 주거 단지는 초고층을 지향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것이 일종의 위계적 상징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집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초고층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라브르 27은 7층 규모의 저층으로 공간을 구성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저층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정원이 가시거리에 포함되어 자연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도 있고요.

“도시 한복판에 사색할 수 있는 자연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은 라브르 27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자연 친화 가설(Biophilia Hypothesis)’이라고 하죠. 신경건축학에서 인간은 자연과 함께 있을 때 본능적으로 안전함을 느끼고, 관계가 회복되며, 질병의 회복 속도도 현저히 좋아집니다. 가족 간에도 훨씬 더 화목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요. 과거에는 ‘전원주택’이라는 형태로 도시 바깥에서 그 혜택을 누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 문명이 주는 혜택과 함께 자연을 경험하는 것을 ‘럭셔리’라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라브르 27은 단지 주변을 따라 키 큰 나무를 식재할 예정이고, 명상을 하고 천천히 산책할 수 있는 물길과 정원 공간도 조성할 겁니다.

“공용 공간에서의 정원만이 아니라 개인 공간에서도 정원을 볼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집 안에 나무와 벤치가 있는 개인 정원을 조성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또 채광과 전망이 가장 좋은 곳에 거실과 주방을 배치했습니다. 요즘에는 다들 핸드폰을 사용하고 식사 후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라이프스타일이 보편화되었는데, 가족이 모이는 식사와 담소 시간은 매우 중요한 일상의 이벤트입니다. 거실을 가족이 모이고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업무 및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도서관·카페를 제안했습니다.”
개인 혹은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과 브레인스토밍을 하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천장고를 높이고, 오픈된 공간으로 소통의 폭을 넓혔습니다. 통상 우리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소통과 몰입을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집과 완전히 분리해 깊은 몰입과 소통이 한 공간에 공존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험적으로 또 관습적으로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랫동안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유는 이를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뇌파와 호르몬, 신경전달물질을 측정하고 기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공간에서 이 사람은 편안하네, 행복하네, 긴장하네, 집중을 잘하네 같은 것요. 그리고 사람의 반응은 기대보다 훨씬 더 즉각적이라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한 5년쯤 살다 보면 변해’가 아니라 그 공간으로 옮겨오는 즉시 뇌 활동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신경건축학이라는 분야가 학문의 영역으로 들어왔고,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설계해보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건물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람에 대한 체계적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공간 설계, 신경건축학적 접근이 앞으로 조금 더 보편화되면 좋겠습니다.”
처음 신경건축학 연구회를 만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창의적인 업무 공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창의적으로 행동하고 성장을 이끌어내는 공간에 관심이 많았죠. 집의 가치를 교통과 교육 환경, 투자 등으로 평가하는 것도 집과 사람을 멀어지게 했고요. 하지만 팬데믹으로 오랜 시간 집에 머물고 한 공간 안에서 가족과 다양한 일을 하며, 집이 내 삶의 질과 행복감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많은 사람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나의 집은 어떤 목적을 지니고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가 말이죠. 그리고 이러한 욕구는 고스란히 건축가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신경건축학은 이에 중요한 실마리와 통찰을 제공합니다.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집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현재 신경건축학의 이슈이자 미래의 큰 흐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표 뇌 과학자 **정재승**. 그는 과학을 예술, 정치, 경제, 사회와 접목해 설명해온 독보적인 과학 커뮤니케이터다. 현재 KAIST 뇌인지과학과 및 융합인재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의사 결정 신경 과학을 연구하고 있다.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정재승 교수는 마인드 브릭 디자인랩 조성행 대표와 함께 라브르 27의 세 가지 핵심 가치인 ‘안전’ ‘성장’ ‘관계’를 구현하기 위한 디자인 원칙 여덟 개를 제시했다. 신경건축학적 요소가 공간 전체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브르 27에 적용한 여덟 개 디자인 원칙 중 다섯 개와 그 근거가 되는 신경건축학 이론을 연결했다. 이를 통해 신경건축학이 왜 사용자 중심의 건축에 새로운 가능성이 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Design & Neuro-architecture Principles

01
방해받지 않는 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한다
스트레스는 외부 환경으로부터 받은 자극의 정도와 그 자극에 대응하는 신체의 반응 능력 사이에 균형이 깨졌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_ Evans G. W. and Cohen S. (1987), “Environmental Stress”, In D. Stokols & I. Altman (Eds), *Handbook of environmental psychology.* (pp. 571~610), New York: Wiley.

02
늘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자연은 다양한 색과 기하학무늬를 지닌 풍부한 신경 자극제로 우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
_ K. G. Medsen (2006), “Neuroscience, the natural environment, and building design.”

03
움직이는 것이 즐거워지도록 한다
중간 정도 강도의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 쥐들에게서는 감염에 대항하는 첫 방어선으로서 중요한 항체 몇 가지와 면역 세포가 증가했고, 기분을 좋게 해주고 우울증에 걸리는 것을 막아주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뇌의 화학물질이 증가했다.
_ Fleshner, M. (2005), “Physical activity and stress resistance: Sympathetic nervous system adaptations prevent stress-induced immunosuppression”, *Exercise and Sport Science Re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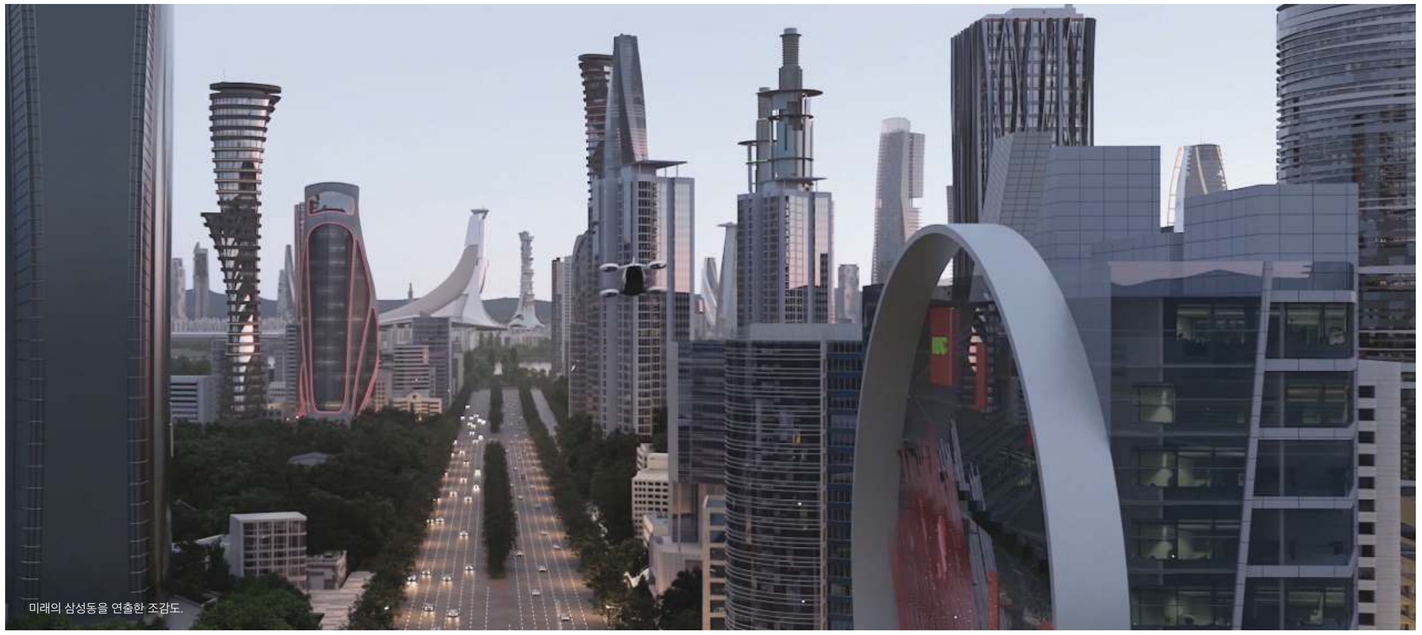
04
가족이 쉽고 편하게 모일 수 있도록 한다
협력하는 구성원이 많은 집단이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는 것은 자연선택이다.
_ Darwin, C. (1871), “The descent of man, and selection in relation to sex.” Bowles, S. (2006), “Group competition, reproductive leveling, and the evolution of human altruism”, *Science.* Fletcher, J. A. and M. Zwick (2004), “Strong altruism can evolve in randomly formed groups”, *J. Theor. Biol.*

05
위계 없는 내면의 품위를 디자인한다
우리 뇌는 사회적으로 설계되었고, 인간과 접촉하는 것에 대한 욕구가 안전에 대한 욕구보다 더 강하다. 사회적으로 배제되었다는 느낌이 육체적 고통으로 활성화되는 부분과 동일한 신경 영역을 활성화한다. 또한 털 고르기(인간 외 영장류)와 접촉(인간)은 건강상 장점이 많다.
_ Eisenberger, N. I., Master, S. L., Inagaki, T. K., Taylor, S. E., Shirinyan, D., Lieberman, M. D. (2011), “Attachment figures activate a safety signal-related neural region and reduce pain experienc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Samseong-dong: A City between Opulence and Tranquility

Kim Saehoo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김세훈**



미래의 삼성동을 연출한 조감도.

글을 쓴 **김세훈**은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이자 뉴노멀 도시 형태와 라이프스타일을 탐구하는 현장형 연구자다.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졸업 후 건축 실무자로 5년을 보냈고,
이후 미국 하버드 대학교 GSD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13년 서울대학교에 부임한 후 현재 서울대 뉴노멀도시디자인센터 센터장,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구로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총괄계획가, 경기주택도시공사 투자심의위원회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도시에서 도시를 찾다≫(2017), ≪서울도시계획사≫(공저)(2021) 등이 있고, 2023년 한 해 삼성증권 CEO 포럼, 현대자동차그룹 핵심인재육성과정, 이지스 자산운용 명사 초청, 서울대 도시·환경미래전략과정 및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 등에서 강의했다.

영동대로 지하 공간 복합 개발 조감도. (이미지 출처: 서울시 국제교류복합지구)

누구나 마음속에 특별한 도시 하나쯤 품고 있을 것이다. 한 도시는 골목길의 멋, 로컬 음식의 풍미, 혹은 밤늦게 들리는 소리와 함께 기억된다. 하지만 기억을 넘어 강렬한 매력으로 전 세계 사람의 영혼을 사로잡는 도시도 있다. 생동감 넘치는 일터와 아름다운 공원, 위대한 예술과 거장의 혼이 담긴 건축물, 근사한 소셜 살롱과 베이커리가 어우러진 지역이 그렇다. 이런 세계적 매력의 도시에는 보스턴, 빈, 코펜하겐, 시드니, 오사카, 암스테르담 등이 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도 강렬한 매력을 지닌 도시 중 하나다. 서울 도심부는 좌묘우사와 인의예지신의 성리학 원리에 기반해 만들어진 전형적인 명당이다. 도심을 둘러싸는 네 개 산 중 하나인 남산 아래로 거대한 한강이 흐르고 있으며, 강과 탄천의 합수부에 자리 잡은 동네가 바로 삼성동이다. 삼성동은 북측으로 압구정·청담동, 남측으로 대치·도곡동, 좌우로 역삼동과 잠실동을 마주하고 있는데, 이곳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패션·교육·업무·문화·스포츠 중심지다.
역삼~선릉~삼성역 일대는 대한민국 기업이라면 모두 탐하는 지역 중 하나다. 국내 지식으로 이어지는 기반 산업의 최고급 인재 약 25만 명이 모여 있는데, 이는 서울과 수도권 관련 산업 종사자의 20%에 해당한다. 리처드 플로리다가 말했듯이 한 도시의 성공은 지식 노동자, 크리에이터, 교육자, 혁신가 등 창조 계층을 끌어들이고 유지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테헤란밸리는 대한민국 핵심 인재가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에서 땀 흘리고 있는 혁신의 진앙지이다.
'삼성동'이라는 이름은 1975년 강남구의 신설과 함께 처음 사용되었다. 강남 개발로 조성한 풋풋한 지역으로 보이지만, 실은 삼성동에 고대 삼국시대의 흔적도 남아 있다. 1천 년 이상의 역사를 간직한 봉은사는 794년 신라 원성왕 때 창건되었고, 삼성동 토성은 한성 백제의 수도를 지키던 곳으로 오늘날 경기고등학교 구릉 일대에 자리하고 있다. 이어 조선 시대의 성종, 정현왕후, 그리고 아들 중종의 능인 선정릉도 도심 속에서 소중한 녹지를 제공하고 있다.
한 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일자리가 밀집한 이곳은 과거에 조성한 절 및 능묘가 조화를 이루고 있다.

무한한 가능성의 땅, 삼성동의 미래

삼성동에서는 큰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의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가 그렇다. 클래리베이터(Clarivate) 선정 글로벌 100대 혁신 기업 중 하나인 현대자동차그룹은 삼성동 사옥을 통해 '어디서나 혁신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선사'하는 개념을 구현하려 한다. GBC는 업무 공간뿐만 아니라 호텔과 전시·컨벤션 및 상업 시설도 포함하며, 코엑스~탄천~종합운동장을 잇는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완성되면 이 지역은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스포츠·엔터테인먼트가 공존하는 아시아의 명소로 각광받을 것이다.
또 삼성동은 대한민국의 지하 공간 개발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영동대로 지하화 및 복합환승센터 건립 프로젝트는 코엑스와 GBC 두 슈퍼블록의 모서리를 한꺼번에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하 7층부터 지상 광장까지 총면적 22만㎡에 달하며 지하에 GTX-A·C 노선, KTX 위례신사선, 지하철 2·9호선 통합역사와 버스·택시 환승 정류장을 포함한다. 이렇게 새로운 개발이 코엑스 및 GBC와 연결되면 잠실야구장 서른 배 규모의 초대형 지하 도시가 우리 발밑에 펼쳐질 예정이다.
지하 도시 공간은 궁금증을 자아낸다. 과거 지하 공간은 방치되거나 침수 위험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지만, 지상 공간이 제한적이고 기상 악화가 빈번한 오늘날 지하 공간의 활용은 점점 중요시된다. 도시는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가고 있다. 특히 서울 같은 초고밀 메트로폴리스에서 대규모 지하 공간을 쾌적하게 구현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도시와 자연의 건강한 공생을 모색하는 삶터

삼성동은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고 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놀이터다. 코엑스에서는 세계적 아트 페어인 프리즈 서울부터 서울국제도서전,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인공지능&빅데이터 쇼, 트래블 쇼 등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회가 매년 열린다. 음악·예술 아카데미, 요리·패션 학교, 교육 문화센터도 풍부하며, 메가박스와 SAC 아트홀 같은 영화 및 문화 예술 공연 장소도 잘 갖추고 있다.
물론 이런 공간이 띄엄띄엄 있는 게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영동대로 상부가 대규모 광장으로 조성되고 탄천 주변 도시 인프라가 정비됨에 따라 주요 활동 거점이 점차 보행으로 연결될 것이다.
탄천과 한강은 삼성동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자원이다. 최근에 겪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 재난은 지구와 환경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경고로 다가왔다. 녹지와 하천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상상하게 하는 그린 인프라이자 고립에 지친 시민들이 숨 쉴 수 있는 도심 속 허파다. 삼성동의 탄천과 한강은 서울대 배정한 교수의 말처럼 "미래 세대를 위한 여백"으로서 도시를 살리는 에메랄드 네크리스다.
좋은 도시는 변화에 열려 있다. 비록 도시 구조와 외관, 즉 겉면은 이미 완성되어 바삭하지만, 구석구석 안을 들여다보면 충분히 말랑말랑해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겉바속촉'의 도시라고 할까. 이런 도시에서는 크고 작은 도시 공간 혁신과 소규모 정비, 팝업 스페이스도 자주 일어난다. 갓 구운 마시멜로처럼 사회적 의지에 따라 형태가 바뀌지만, 도시 구성원에게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다양한 공간 실험이 진행되는 삼성동은 겉바속촉 마시멜로처럼 다가올 미래를 준비 중이다.
삼성동은 글로벌 매력을 가꾸는 비즈니스 중심지이자 도시와 자연의 건강한 공생을 모색하는 삶터이다. "위대한 문명 뒤에는 위대한 도시가 있다"는 에드워드 홀의 말처럼, 위대한 도시 안에는 깊은 경험을 주는 동네 삼성동이 있다. 천년 고찰과 능묘, 글로벌 기업과 탄천을 끼고 있는 도시 속 도시 삼성동은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Neighborhood

Rooted in Heritages and Memories: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세 개 마을이 모인 삼성동, 역사와 예술의 본원

삼성동은 이름 그대로 '셋(三)이 하나를 이룬(成) 마을(洞)'을 뜻한다. 1천2백여 년 역사를 품은 사찰 봉은사를 둘러싼 봉은사마을, 춤추는 아이(舞童)의 모습을 닮은 무동도마을, 한지의 원료인 닥나무가 많은 닥점마을 등 세 마을이 하나를 이뤄 삼성동이 탄생한 것이다. 이 같은 역사는 삼성동의 고유한 특성과도 맥이 닿아 있다. 바로 '서로 다른 것의 조화'다.

과거 삼성동은 역사와 예술이 만난 문화의 본원(本源)이라 할 만했다. 봉은사마을의 중심인 봉은사는 신라 시대의 고승 연회국사(緣會國師)가 794년에 창건한 절로, 1551년 보우 스님이 중창(重創)해 부처님 말씀을 널리 알리는 한양의 중심 도량 역할을 해왔다. 봉은사 판전(板殿)에는 추사 김정희(1786~1856)가 죽기 사흘 전 심혈을 기울여 쓴 편액이 걸려 있으며, ≪무소유≫로 유명한 법정 스님이 젊은 시절 글을 쓰며 수행한 곳은 봉은사 다래헌이다. 봉은사는 이런 역사와 예술을 품고, 현재 도심 속 한적한 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닥점마을(저자도)은 닥나무를 파는 상점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닥나무 껍질은 한지 원료이니 이 마을은 종이와 책의 원류(源流)였던 셈이다. 닥나무가 많은 근처 섬은 닥나무 저(楮) 자를 따서 '저자도'라고 부르기도 했다. 여주강으로 나가는 중요한 수로였던 저자도는 조선 왕실 소유의 섬으로, 기우제를 올리는 장소였다. 한강 본류가 선회하는 지점이라 잔잔한 호수처럼 보인다는 서호(西湖) 옆 동호(東湖)에 이 저자도가 위치했는데, 동호 일대에는 왕실 소유의 정자나 독서당(讀書堂)·압구정(狎鷗亭) 같은 문인들의 정자가 많았다. 저자도에 별장의 일종인 별서(別墅)를 두고 풍류를 즐긴 문인들과 이들이 남긴 글그림이 상당수다.

대모산의 기운을 감싸 안은 한강, '산포수회(山包水廻)'의 길지

물론 지금의 삼성동은 과거와는 사뭇 결이 다른 풍경을 품고 있다. 다양한 인프라와 편리한 교통망을 갖춘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에선 과거와 현재가 그리 다르지 않다. 삼성동에는 국제 교류와 경제의 중심지로 통하는 테헤란로와 한국종합무역센터, 조용한 고급 주택가가 공존한다. 복잡하고 분주한 일상과 평화롭고 안온한 쉼이 함께 머무는 셈이다.

삼성동이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다.

본래 강남 지역은 한강과 그 주변 유역이 제공하는 비옥한 토지 및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사람들의 교류가 활발하고, 문화가 융성하던 곳이다. 그중에서도 삼성동은 '대모산의 기운과 재물을 뜻하는 물(江)이 감싸고 도는 명당'으로 통했다. 남쪽 대모산의 좋은 기운이 한강을 만나 멈춰 선 곳이 삼성동이라는 이야기다. 산과 물이 서로 얽혀 싸고 도는 길지(吉地)라 하여 '산진수회(山盡水廻)'라고도 부르고, 사방의 산들이 잘 감싸주어 외부의 차갑거나 거센 바람을 막아주고 내부의 온유한 기운을 잘 갈무리해주는 곳이라 하여 '환포장풍(環抱藏風)'이라고도 불렀던 이유다. 이렇게 산과 강 그리고 빛과 바람이 하나 되고 인간과 자연이 서로 균형을 이룬 삼성동의 '하나 남은 명당', 그곳이 바로 라브르 27이 들어서게 될 삼성동 90-20 부지다.

라브르 27, 삼성동의 하나 남은 명당

연면적 2만 2449m², 지하 5층에 지상 7층 규모의 2개 동, 총 27세대가 자리할 이곳은 옛 대웅제약 사택 부지로도 유명하다. 한강과 탄천이 이수합지(二水合地)하는 곳에 위치해 부와 명예를 모두 누릴 수 있는 명당이자 한 가문이 일가를 이뤄낸 귀한 터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금계가 알을 품은 듯한 형국의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 터라 재물이 모이고, 귀한 인물이 탄생하는 길지로 통한다. 또한 봉은사 수도산(修道山)의 기를 머금고 있어 주변 전체 분위기가 온화하며 아늑하다. 일조, 채광, 통풍, 녹지 등 경관의 쾌적성과 조망권 역시 나무랄 데가 없다. 가장 번화한 도심에 있음에도 그 기척을 느낄 수 없을 만큼 안온한 최적의 주거지인 셈이다.

라브르 27의 특별한 가치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도심의 편리함과 자연의 청량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고, 바쁜 일상과 쉼이 함께하며, 집의 본질인 안전과 성장 및 관계를 꿈꿀 수 있는 곳. 누구나 바라마지않는 최상의 입지에 구현될 이상적인 집이다.

1910~1930년대의 삼성동 지도. (이미지 출처: 국토정보플랫폼)

A Home for the City Flaneur

BP architects **구승회·이영조**

BP아키텍츠는 이영조와 구승회 두 건축가가 이끄는 건축설계 사무소다. 구승회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이영조는 미시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마치고 한국에서 건축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도시 안에서 사람이 일하고 머무르며, 즐기고 쉬어 가는 공간의 다음 모습을 고민해 디자인에 담아낸다. 최근작으로는 라브르 27, 두오모 사옥, 빌라드그리움 L, FNC 사옥 등이 있다.

집의 본질을 찾아서

"라브르 27은 삼성동에 들어설 지하 5층, 지상 7층 규모의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번화한 도심이지만 대로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와 있어 한적한 동네라는 점, 대규모 단지와 단독주택 사이의 규모·형식을 지녔다는 점은 여느 하이엔드 주거와 구분되는 정체성입니다."

구승회 삼성동은 서울 안에서도 유동 인구가 많고 비즈니스 공간이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밀도 높은 도심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완전히 다른 풍경이 나타납니다. 높이가 낮은 주택이 늘어선 조용하고 평화로운 동네가 펼쳐지죠. 라브르 27은 도심 주거의 접근성과 동네의 안온함을 동시에 누리는 경계에 자리합니다.

이영조 경사진 지형, 7층이 넘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법적 제약을 반영해 저층부에 단독주택을 닮은 유형인 가든하우스를 설계했습니다. 가든하우스로 구성한 3층 규모의 건물이 있고 그 뒤로 살짝 물러나 7층 건물이 서 있는 형태예요. 덕분에 거리를 걷는 사람은 갑자기 거대한 부피의 건물을 맞닥뜨리는 대신 점진적으로 높은 건물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물 내에서뿐 아니라 도시 안에서도 조용히 다가가는 자세를 취한 것이죠.

"'집다운 집, 집의 본질'에 접근하자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주요한 요구 사항이었어요. 건강한 집, 오롯이 삶을 영위하는 집을 만들어보자고 했고, 저희의 설계는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영조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 주택, 다세대주택 등 여러 주거 프로젝트를 진행해오며 도시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늘 고민해왔어요. 라브르 27은 이에 대해 저희가 내린 답 중 하나입니다. 고급스러움이나 호화로움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평온함을 만들 것인가에 집중했어요. 이를 위해 공동주택이지만, 각각의 세대는 단독주택처럼 구성했습니다. 실내 곳곳에 자연을 들인다거나 단지에 진입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최대한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도록 동선을 분리하는 식으로요.

"BP아키텍츠가 정의한 '집다운 집'은 나의 삶에 맞는 조건이 공간으로 구현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이 공간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대로 커스터마이징하는 유연한 집을 상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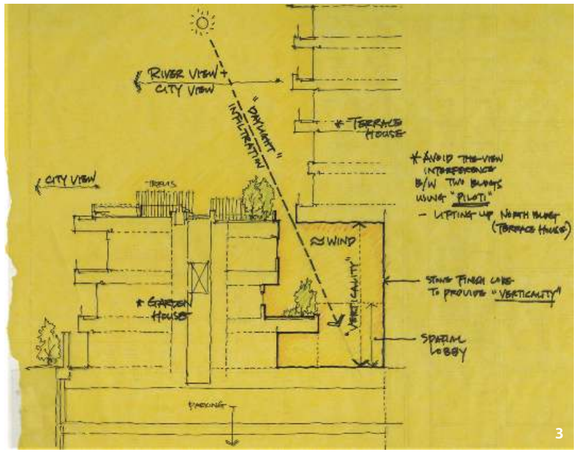
구승회 아파트가 대부분인 한국에서는 집에 대한 암묵적 기준이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상의 집은 방이 몇 개 이상 있어야 하고, 거실 한쪽에는 텔레비전이, 반대쪽에는 소파가 놓인 것처럼요. 하지만 같은 면적의 집에서도 누군가는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 같은 집을, 누군가는 원룸형 스튜디오를 원할 수도 있죠. 획일화된 도시 주거 환경에서 조금은 다른 공간이 등장해 사람들이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했습니다.

아파트는 워낙 대단지이기도 하고 시스템의 여러 한계 때문에 커스터마이징을 구현하기가 어렵습니다. 단독주택은 사용자에 철저히 맞춘 집이지만 서울에서 소유해볼 기회가 흔치 않고요. 반면 라브르 27은 27세대가 거주하는 곳이기에 커스터마이징을 시도해볼 수 있는 규모였어요.

"저층형의 가든하우스와 7층 규모 건물의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까지 세 가지 유형을 계획하고 벽을 바꾸거나 방 개수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를 도입했습니다."

이영조 커스터마이징을 위해 아파트의 벽식 구조 대신 기둥이 지지하는 라멘(Rahmen) 구조(수직 기둥과 수평 보로 이루어진 골조가 건물의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 기둥 위에 보를 올리기 때문에 벽식 구조보다 평균 층고가 높고, 보와 기둥으로 소음이 분산돼 층간 소음도 덜하다)를 도입했어요.

1 라브르 27 렌더링 이미지와 도면이 놓인 BP아키텍츠 사무실 전경. 렌더링 이미지에서 도심 한복판이지만 단독주택 같은 여유가 느껴진다.
2 라브르 27 모형. 3층 규모의 가든하우스가 아래에 있고, 살짝 물러나 7층 규모 건물이 서 있다.
3 라브르 27 단면도. 지하층 로비까지 빠짐없이 채광이 닿도록 설계했다. 도면은 BP아키텍츠 제공.



또 위아래로 연결되는 배관 위치를 통일하고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설비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쉽게 말해 벽의 위치를 자유롭게 옮기고 새로 설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죠. 그렇게 27세대 모두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습니다. 파사드 또한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별 유형이 모여 하나의 집합체로서 이미지를 구현합니다. 이 파사드 자체가 라브르라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셈입니다.

'신경건축학'을 도입한 집

"라브르 27의 특징 중 하나는 '신경건축학'을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정재승 교수님은 공간이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을 기반으로 여러 요소를 제안했어요. 그중에서도 특히 자연을 강조했습니다."

구승회 건물을 들어 올리고 아래를 비우는 방법으로 정원을 충분히 배치했고, 지하에는 구멍을 뚫어 성큰(Sunken)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경사지라는 조건을 활용해 창을 내고 햇빛과 바람이 드나들게 했어요. 덕분에 라브르 27에서는 어디에 있더라도 외부 공간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영조 라브르(L'Arbre)는 프랑스어로 '나무'를 뜻합니다. 지면에서 들어 올린 건물과 그 아래 정원이 자리한 외관부터 나무 형상을 닮았죠. 적절한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나무가 잘 자라는 것처럼 사람이 사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공간일 때 우리도 잘 살 수 있는 집이 된다'라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자연에 대한 강조는 '도시 산책자를 위한 집(Promenade to Private Nature)'이라는 콘셉트로 이어집니다. 도시에서 단지에 진입하고 집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이 산책처럼 느껴지도록 설계했습니다."

이영조 우선 스케일감을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로비처럼 공간감을 충분히 느껴야 할 곳에는 높은 층고를 확보하고 넓은 면적을 할애했어요. 거기서부터 집에 도달할 때까지 단계적으로 스케일을 낮추고 재료는 집을 닮은 편안한 색감과 질감으로 바꾸어갔습니다. 또한 실외와 실내의 경계를 허무는 장치를 곳곳에 배치했어요. 이를테면 로비에는 수직적으로 공간감을 확보한 후 천창을 설치해 빛을 가득 들였고, 1층의 주민 라운지는 바깥 정원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했습니다.

"신경건축학에서 자연만큼 강조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사람은 홀로 안전하게 있고 싶어 하는 동시에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해요. 공용 공간부터 주거 공간까지 이러한 관계성을 세심하게 조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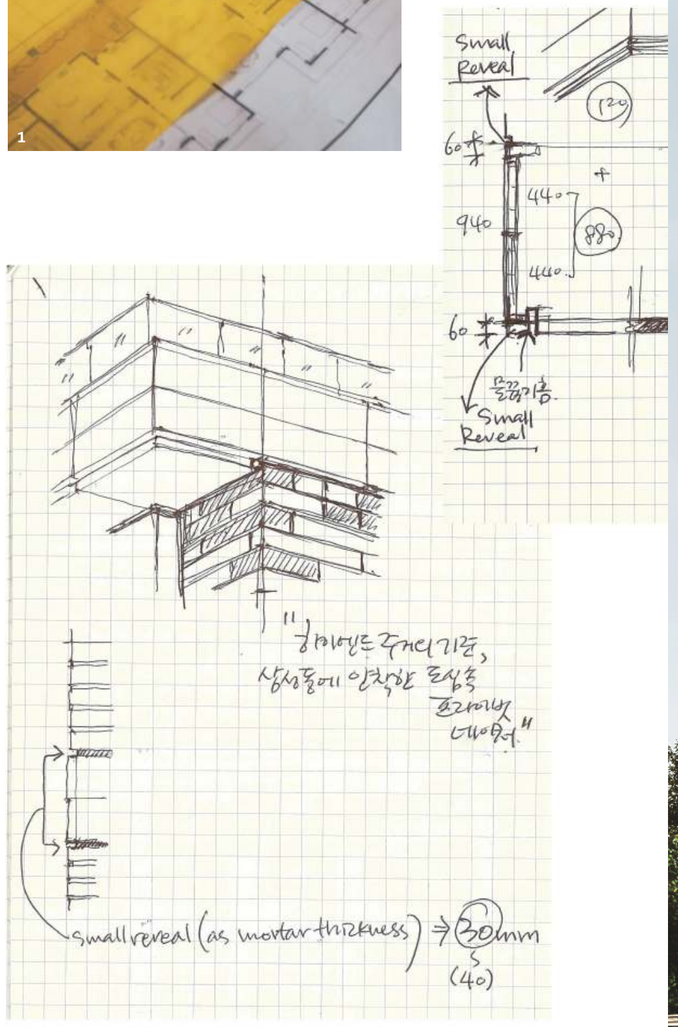
이영조 혼자 카페에서 공부할 때 누군가와 대화하지 않지만, 카페 사람들과 섞인 환경에서 집중하는 것처럼 이곳 또한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되 영역은 침해하지 않는 정도의 거리감으로 설계했어요. 공용 공간은 거주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면서 가끔 마주치는 낮은 밀도를 기본으로 했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치거나 모이는 곳에는 더욱 충분한 면적을 할애했습니다.

구승회 또 건물 규모에 비해 BOH(Back of House), 즉 지원 공간을 여유 있게 설계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컴퓨터를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생기듯 집 또한 기능이 달라지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져요. 로봇이 유리창을 닦는다거나 건물을 유지하는 시스템 자체가 바뀔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일어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커뮤니티 공간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결국 정재승 교수님이 제안한 신경건축학적 개념을 건축적으로 구현한 집은 건축에서 좋은 공간이라 여기는 것과 일치했어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지만, 같은 결과물이 탄생한 것이죠. 좋은 공간이 무엇이라고 뚜렷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자연스레 편안함과 여유를 느끼는 것처럼요."

구승회 훨씬 대규모 단지 또는 넓고 호화로운 집이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이곳을 택한 사람이라면 라브르 27이라는 주거 단지에서 '남들과는 다른 삶, 내가 원하는 모습에 가까운 삶을 살고 있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공간에 있어'라는 느낌을 받으면 좋겠어요. 라브르 27이 특별한 취향을 지녔거나 집에 대해 자신만의 의견이 있는 사람을 위한 도화지가 되기를 바라요. 앞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경험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싶고요.

1



2

1 구승회 소장이 도면을 검토하는 모습. 세대마다 벽의 위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평면을 계획했다.
2 라브르 27의 파사드 스케치. 27세대의 서로 다른 유형을 조합한 덕분에 파사드 곳곳에서 깊이감을 느낄 수 있다.
오른쪽 라브르 27 전경. 저층형의 가든하우스와 7층 규모 건물의 테라스하우스, 펜트하우스까지 세 가지 유형이 공존한다.

Architecture

The Green Trinity

**도심 주거의 편리한 접근성과 동네의 안온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평온한 집, 거주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 커스터마이징한 집,
그리고 자연과 친밀한 집. 라브르 27은 이 같은 생각을 테라스하우스, 가든하우스, 펜트하우스, 세 가지 타입의 집에 고스란히 구현했다.
라브르 27에 머무는 이로 하여금 '집은 이래야 해'라는 암묵적 편견을 뛰어넘게 하는 집, 실내와 실외의 경계를 허물며
거주자의 취향과 의견을 온전히 반영한 집을 탄생시켰다.**

PENTHOUSE _ 2개 유닛, 전용면적 490.81~546.03m²

하늘과 마주하며 잠드는 일상

라브르 27의 펜트하우스는 커튼월로 둘러싸인 글라스 하우스(Glass House)로, 현대건축의 거장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Ludwig Mies Van Der Rohe)의 판스워스 하우스(Farnsworth House)에서 영감을 받아 설계했다. 남향을 포함해 삼면이 넓고 깊은 테라스와 도심 주거에서 볼 수 없는 거대한 스케일의 파노라마 뷰가 특징이다.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새로운 스타일의 단독주택으로, 하늘을 향해 뚫린 천창과 옥상정원을 통해 누리는 '프라이빗 네이처(Private Nature)'는 단 두 세대뿐인 펜트하우스에 더욱 특별한 가치를 더한다.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야외 공간과 인피니티 풀을 옥상에 배치해 더 넓고 자연과 가까운 곳에서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한국에서 통용되는 집에 대한 암묵적 기준을 가뿐히 넘어선 것 또한 돋보이는 요소다. 제한된 면적, 획일화된 공간 구성에서 벗어나 한 층 전체라는 넓은 면적이 주는 공간 가치를 제시한 점도 라브르 27 펜트하우스만의 매력이다.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TERRACE HOUSE _ 20개 유닛, 전용면적 239.57~271.44m²

테라스에서 즐기는 완벽한 여유

팬데믹 이후 집 안에서 집 밖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진 테라스는 실내 면적만 중요하게 여기던 오랜 관습을 자연 친화적 공간에 대한 니즈로 전환하고 이를 적용해 현실화한다. 집 안에서 바라보는 바깥 풍경은 답답한 가슴에 숨통을 틔우고 스트레스로 지친 몸에 쉼을 선사한다. 라브르 27의 테라스하우스는 거실과 방마다 넓은 테라스와 확장된 창을 배치해 안과 밖을 하나로 연결하고, 세련된 내부 공간을 테라스와 연계해 공간 경험을 극대화했다. 라멘식 구조를 적용해 층고가 높고 뷰가 탁월하며, 개인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공간 구성과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유연하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GARDEN HOUSE _ 5개 유닛, 전용면적 383.75~465.55m²

빛과 바람이 머무는 녹색 정원

유럽에서 저층 단독주택이 고층 빌딩형 주택보다 고급 주거 형태로 자리매김한 이유는 개인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주거 문화 때문이다. 라브르 27의 가든하우스는 이를 반영해 3층 규모의 건물, 유닛 5개에 각각 개별 출입구를 만들어 각 세대를 다른 세대로부터 완전히 분리했다. 단독주택의 독립성과 공동주택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구조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각 세대와 단지 내 공용 시설을 실내 개별 통로로 연결해 입주민의 편의를 극대화한 것이다. 더욱이 고급 주택의 기본 요소인 앞마당과 후정(後庭)은 물론, 하늘로 열린 중정(中庭)을 실내에 두어 언제든 빛과 바람이 머무는 녹색 정원에서 자연과 교감하며 안온한 쉼을 즐길 수 있다. 옥탑층에는 야외 개인 정원과 인피니티 풀을 배치해 올인클루시브(All-inclusive)한 가치를 더했다.

Brand Concept & Interior Design

Promenade to Private Nature

Studio KIM/ILLI

based in Berlin&Seoul
김슬비/크리스티안 일리(Christian Illi)

스튜디오 킴앤일리는 예술, 건축, 디자인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협업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시각, 소리 및 공간과 같은 물질적 비물질적 표현 방법을 활용해 리서치, 글로벌 콘텍스트에서의 네트워크 확장, 커뮤니티 및 공공 공간 간의 예술과 디자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최근 국제 예술&건축 어워드를 석권하며 주목받는 베를린 디자이너&아티스트로, 2021년 EDGE East Side 컴피티션 1위, 2022년 Federal Environment Agency & Federal Office for Building and Regional Planning 컴피티션 2위를 수상했다.
독일의 세계적 전시 디자인 전문 회사 아틀리에 브뤼크너(Atelier Brueckner)에서 State Museum of Art Uzbekistan, Museum of the Future Dubai, Volkswagen Zeithaus Museum, Hyundai Motor Studio Jakarta 등의 글로벌 뮤지엄 프로젝트 및 브랜드와 함께 일하며 전시 총괄 기획과 디자인을 진행했다. 또한 휴고 보스, 포르쉐 등의 클라이언트와 브랜드 이미지를 함께 개발해왔다.

라브르 27의 브랜드 콘셉트와 디자인 개발을 담당한 스튜디오 킴앤일리. 독일 베를린을 기반으로 유럽, 한국 및 동남아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모든 위대한 것은 집이라는 것에서 기인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의 개념은 개인의 생활공간이 삶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방증하는데요, 우선 집이 인간 삶에서 중요한 모든 것의 기원임을 강조한 것이죠. 아울러 '럭셔리한 삶'은 물질적 소유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세계와의 깊은 연결, 이를 통한 성찰과 자기 발견의 공간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브르 27 실내 공간의 디자인 콘셉트는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거의 럭셔리는 자연과의 연결이다.' 진정한 고급은 화려함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의 단순함과 진정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자연과의 조화와 깊은 연결은 결과적으로 자기 내면세계와의 소통을 만들어낸다는 것, 삶의 복잡성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이 있는 곳이 바로 기품 있는 삶의 바탕이라는 개념이죠. 이와 함께 바이오필리아(Biophilia)를 지향하는 자연 친화적 디자인이 주요 콘셉트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의 본질'이라는 추상적 개념을 현실화하기 위해 라브르 27은 신경건축학, 음양오행 사상과 풍수학 등을 도입하고 다학제적 자문을 거쳤습니다. 이를 디자인에 적용하기 위해 프로젝트 초반부터 다양한 노력을 했고요. '뇌의 휴식·향상성·공감·향수와 귀소' 같은 핵심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요소의 결합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과의 조화'라는 키워드를 구현하기 위해 실내에 중정 및 가든을 조성하고, 단지를 거니는 입체적 산책로와 이를 따라 흐르는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천장고가 10m 이상 되는 로비 공간의 글라스 루프를 통해 깊이 있는 공간감을 담아냈고, 좀 더 특별한 방법으로 하루와 계절의 변화를 실내로 끌어들이도록 했죠. 다양한 형태의 정원(명상 정원, 중정, 수직 정원, 어스 정원과 물의 정원 등)을 조성해 도심 속에서 자연의 휴식 공간을 만끽하게 했고요. 가든하우스, 펜트하우스의 루프톱에는 개인 정원과 인피니티 풀을 계획해 좀 더 프라이빗한 환경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집은 매우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개인의 안전과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설계가 중요합니다. 라멘 구조를 통해 개인에게 커스텀화한 인테리어 환경을 제공하고, 새로운 개념의 주택 평면을 고객과 함께 디자인하도록

계획했습니다. 동선의 최소화와 공간의 효율성만을 목표로 한 똑같은 평면 배치가 아니라, 실제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나만의 집을 함께 디자인하도록 한 거죠.
라이브러리, 비즈니스 센터, 콘퍼런스룸, 개인 레슨룸 등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특히 필요한 회의나 업무 관련 시설을 세심하게 계획한 것도 주거 생활의 풍요로움을 고려한 부분입니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사적 공간을 공간적으로 분리했는데, 이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중요한 과제로 다룬 결과물이죠. 또한 사적 영역인 가족이 모이는 공간과 공용 공간의 조화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렇듯 라브르 27은 '안전·성장·관계'라는 대주제 안에서 다양한 디자인적 고려를 통해 '집의 본질'을 구체화한 주거 단지입니다.

"집은 매우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공동 주거 단지에서도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독립성의 보호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라브르 27의 가든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는 대지의 경사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전면에 배치한 가든하우스는 메인 빌딩에서 완전히 분리해 각 유닛이 개별 출입구가 있는 형태예요. 이는 단독주택의 독립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통 한국의 도시 공간에서 이러한 구조를 찾아보기는 힘들죠. 테라스하우스 역시 각 유닛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를 나눠 동선이 겹치는 부분을 최소화했습니다. 가든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를 연결하는 중앙의 로비라운지 공간은 필로티 형태의 건축구조를 통해 외부로 열린 순환 형태를 띠는데, 이것이 공간을 연결하고 분리하는 역할을 동시에 가능하게 한 실례라 할 수 있죠.

"공동의 생활 영역은 '관계'라는 키워드와 함께 주민 간의 관계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하지만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개별화·사유화'는 럭셔리 주거의 주요 과제이기도 합니다. CDC, WHO처럼 권위 있는 기관들이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공공장소의 인원 제한을 권장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공공 영역을 축소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라브르 27은 9백 평 이상의 공공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공공시설을 사유화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계획했다는 데 차별성이 있습니다. 동선 분리, 예약제 서비스, 개별화된 디자인 디테일을 고려한 '공공 공간 안의 개인 공간' '확장적 개념으로 개인 공간' 등 공유와 사유의 맥락을 모두 만족시킨 결과물이죠.
예를 들면, 사우나 공간은 유닛별로 개인 라커룸을 제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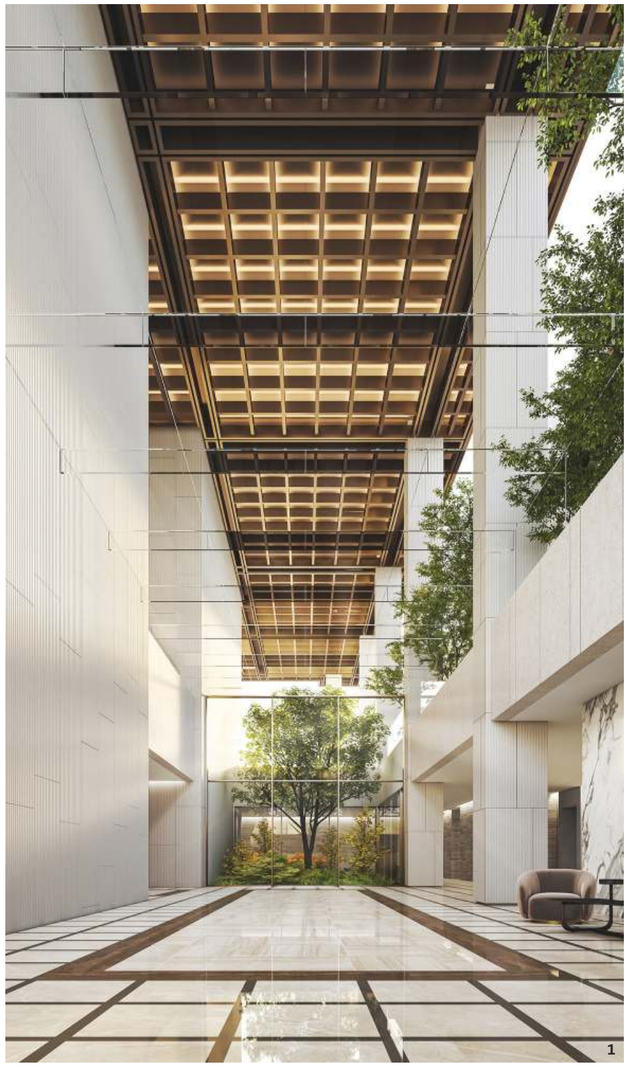
1

2

또 라커룸에서 시작해 개인 파우더룸과 개인 샤워실까지 모두 개별 동선으로 구성합니다. 이는 공용 공간의 사유화를 적절하게 적용한 예가 될 수 있죠. 스터디룸, 레슨룸은 각각 개별 공간으로 분리·배치했고요. 라이브러리의 가구 역시 글라스 파티션을 선택해 공공 공간 안에서 개인이 집중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했습니다.
공공 영역의 사유화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안전을 보장하면서도 다양성과 개별화를 존중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커뮤니티 공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관계 형성과 사유 활동을 경험할 수 있죠.

"커뮤니티 공간은 '서비스·관리'라는 측면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자인적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Back of House의 배치를 개별적으로 계획한 것이 그 예죠. 이를 통해 오버클라우딩을 방지해 쾌적한 공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오물 하차와 이를 관리하는 동선도 입주민 동선과 분리하고, 택배 보관 서비스도 공용 공간에 개별 라커를 두어 외부인과 접촉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외에도 생활에 필요한 청소 소독, 산모·가사·정리 수납·보육 도우미, 인테리어, 식물 케어, 세탁, 펫 케어, 어린이 돌봄, 방문 세차 같은 풍부한 리빙·테일러 서비스를 계획했는데요, 이는 일상의 경험을 업스케일할 서비스입니다.

"라브르 27의 슬로건은 'Promenade to Private Nature'입니다. 프롬나드는 도시의 자유로운 산책자, 플라뇌르의 정신을 되새기게 합니다. 목적 없이 걷는 산책길에서 발견한 우연,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몽상과도 같은 자연이죠."
근면이 선이고 게으름이 악이던 우리 사회에서 플라뇌르를 대체할 단어를 찾기는 힘듭니다. 자연 속에서 어떠한 압력 없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영감을 주는 휴식을 즐기는 프라이빗 네이처가 바로 플라뇌르죠. 이 편안함과 여유는 오늘날의 럭셔리로 대변됩니다. 지금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되 또 한편으로 누리는 고독, 평화로운 삶, 자연 속 사색에서 본질적인 행복을 찾습니다. 이 같은 자연스러움이 공존하는 곳으로 라브르 27의 각 공간을 계획했습니다. 자연의 사유화(Private Nature)는 자연의 거대함을 개인의 사적 공간 영역으로 들이는 데 그 출발점이 있죠. 소음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각각의 공간이 완벽한 휴식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습니다.


1

3

2

1,3 루프톱 콘셉트 이미지. 개인 정원과 인피니티 풀을 두어 프라이빗한 환경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 신경건축학을 반영한 가든 디자인. 모든 콘셉트 이미지는 스튜디오 킴앤일리 제공.

1 글라스 루프를 통해 개방감과 깊이감을 확보한 로비.
2 예약제로 운영하는 파티 라운지.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Brand Concept & Interior Design

A Communal Space with Individual Comfort

라브르 27의 커뮤니티 공간에선 언제나 자연과의 대화가 펼쳐진다. 글라스 루프를 활용해 빛이 잘 드는 로비, 사색과 명상하기 좋은 실내 정원, 빛과 바람이 지나는 길을 열어주는 필로티 형태의 호텔식 성큰 로비…. 이들 공간에 구현한 '내추럴 헤리티지(Natural Heritage)' 감성은 건축의 경계를 확장한다. 이는 단지 자연과 함께하는 공간을 넘어 자연의 회복과 치유력을 경험하는 공간으로 진일보한 개념이다. 아울러 '공유'와 '사유'의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공용 시설과 편리한 리빙·테일러 서비스는 일상을 더욱 여유롭고 쾌적하게 만들어준다.

1

상기 CG는 건축 허가 및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3

빛·바람·나무, 자연의 숨결이 녹아든 커뮤니티 공간

커뮤니티 공간은 '좋은 디자인은 자연 앞에 겸손하고 사람에게 친절하다'라는 명제를 충실하게 재현할 뿐 아니라, 자연과의 조화 및 연결을 통해 진정한 럭셔리를 구현하는 데 집중한다. 다양한 형태의 중정을 실내에 들이고, 커뮤니티 공간 곳곳에 빛과 바람이 지나는 길을 만들어 우리 내면 깊숙이 각인된 바이오필리아를 충족시킨다.
필로티 구조의 특성을 잘 살린 LF(Lobby Floor)층 로비는 글라스 루프를 적용해 어느 곳 하나 닫힌 데 없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낸다. 실내에서도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 낮과 밤, 계절, 그리고 자연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처럼 투명성과 깊이감을 갖춘 진입 공간에서 사용자는 라브르 27에 더해진 세심한 건축적 배려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브르 27의 커뮤니티 공간 안에서 우리는 혼자든, 함께하든 언제나 평화롭다.

4

5

6

7

1 지하 1층에 마련한 요가&필라테스 공간. **2** F 1층의 야외 가든과 연결된 오픈 라이브러리. **3** 업무 미팅과 회의 등을 위한 콘퍼런스룸. **4** 사우나 공간. 세대당 개인 라커, 파우더룸, 샤워실을 별도로 제공한다. **5** 회의나 업무 관련 작업이 가능한 비즈니스 센터. **6** 스크린 골프 시설이 적용된 골프룸. **7** 각 세대당 5.5대의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다양성과 개별성을 고려한 공용 공간의 사유화

라브르 27의 공용 시설 설계는 '공공 공간 안의 개인 공간' '확장적 개념으로의 개인 공간', 즉 공유와 사유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킨다. 단지 내 공용 시설을 사유화해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고, 개인의 다양성과 개별성을 존중한 것이다. 라브르 27의 LF층에는 로비와 진입 공간, 라이브러리, 비즈니스 센터, 콘퍼런스룸, 개인 레슨룸 등이 자리한다. 비즈니스, 연구, 학습 등 재택근무와 학업의 연장선상에서 주거 기능을 확장적으로 활용하려는 입주민을 위해 전문 시설을 배치한 것이다. 지하 1층에는 사우나·피트니스·필라테스·스크린 골프 등 다양한 운동 시설을 마련하고, 이들 공간을 두 개 야외 정원과 연결해 운동 후 휴식을 취하거나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특히 사우나 공간은 각 세대당 개인 라커를 제공하고, 라커룸부터 개인 파우더룸과 개인 샤워실까지 모두 개별 동선으로 사우나룸과 연결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남녀 사우나에는 '산소 테라피 챔버(고압산소치료기기 챔버)'를 각각 하나씩 설치해 신진대사 기능 향상과 회복력 증대 등 여러 테라피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F 1층에는 야외 가든과 연결된 오픈 라이브러리, 입주민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파티 라운지를 배치했다. 라이브러리에는 글라스 파티션을 설치해 공공 공간 안에서 사적 영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했으며, 예약제로 운영하는 파티 라운지는 테일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라브르 27의 모든 공용 공간은 분리 동선, 파티션 설치, 예약제 서비스 등을 적용해 '공용 공간의 사유화'라는 목적을 이루어냈다.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에 둔 콘시어지 서비스

라브르 27은 입주민의 편의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호텔식 콘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입주민과 관리자의 동선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Back of House의 배치를 개별적으로 계획했으며, 오물 수거와 이를 관리하는 동선도 입주민 동선과 분리해 쾌적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택배 보관 또한 공용부 공간에 세대별 라커를 두어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했다. 이 외에도 각 세대별로 약 5.5대의 주차 공간과 다용도실·금고 등으로 활용 가능한 약 7평대의 개별 창고를 배치했다.

Landscaping Architecture

The Experience of Nature is Aesthetic

Office ParkKim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조경의 본질은 ‘자연의 경험’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라브르 27은 국내에서 가장 조경의 본질에 충실한 고급 주거 단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조경’이란 단순하게 공간을 장식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조경의 본질은 자연의 경험입니다. 자연의 경험은 반드시 녹색 나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빛, 향기, 소리 등 오감 요소가 크게 작용하지요. 라브르 27의 조경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이러한 현상학적 아름다움을 어떻게 공간으로 이끌어낼 것 인가였습니다. 우리가 숲속에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경험의 에센스를 공간에 녹여 마치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재현하는 것이 핵심이었죠. 어메니티를 완벽하게 갖춘 인공적 환경 중간중간에 빛을 투과하는 거대한 녹색 월(수직 정원)을 도입하는 등 자연의 경험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복잡한 도시 생활 속에서 집은 언제나 평온해야 하고, 명상의 장소여야 합니다. ‘사람은 자연환경 속에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신경건축학의 관점을 라브르 27의 정원에 구현했습니다.”
주거의 중심엔 자연, 즉 생명이 있다는 신경건축학의 이론에 동의합니다. 고급 재료를 사용해 외관만 화려한 건축이 아닌, 실제로 감각할 수 있고 온몸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야 하죠. 잘 구성한 조경은 복잡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집으로 귀가할 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정원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안정감을 얻는 것이죠. 라브르 27에서는 여덟 개 정원 중 평온의 정원과 명상 정원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두 곳은 로비 등 건물 공용부에 만든 축경식 정원(자연의 풍경을 그대로 축소해 만든 조경)입니다. 돌과 흙으로 구성하고, 자연 재료가 주는 날것의 질감을 극대화해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선의 효과를 전달하는 정원이지요. 돌과 흙으로 만든 조그만 언덕을 자연에 펼쳐진 산처럼 느끼게 하는 메타포적 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브르 27이 자리하는 터의 가치를 전통과 현대 풍수에 입각해 조경으로 장점화했습니다.”
조경의 다른 말은 ‘터에 관한 미학’입니다. 조경은 터의 장점을 잘 살려서 그 기운을 공간적으로 발현하는 작업인 것이죠. 라브르 27은 한강과 탄천이 이수합지(二水合地)하는 합수머리에 자리하며, 또한 풍수의 근본인 배산임수(背山臨水)와 남향(南向)의 조건을 모두 갖춘 명당입니다. 이러한 배산임수의 풍수적 장점을 조경으로 드러내기 위해 단지 앞에 흐르는 선형의 물길, 즉 수(水) 공간(물의 정원)을 만들었죠. 그리고 건물 외곽 양옆으로는 바람과 어메니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숲(숲의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이는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시에 계절감을 느끼게 하고, 자연을 더 적극적으로 안으로 들이는 역할을 하죠. 숲이 바람을 보호하기도 하고 끌어들이기도 하고, 시선을 막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등 좋은 주거가 지닌 풍수의 조건을 공간적으로 극대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현대 풍수의 관점에서 건물이 올라가는 것은 새로운 산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길이 만들어지는 것도 새로운 강이 뚫리는 것이라고 해석하죠. 길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다니고 만나며, 또한 산이 생기는 것처럼 건물이 바람을 보호하고 밀도를 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新)도시 풍수에 입각해봤을 때도 라브르 27은 굉장히 가치 있는 땅입니다. 앞으로는 영동대교라는 새로운 길이 뚫리고, 뒤로는 아이파크 등 건물이 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브르 27은 음양오행에 근거한 조경을 갖췄습니다. 자연의 기본 요소인 음양오행을 바탕으로 한 자연적 질감을 깊이 있는 물성으로 제안했습니다.”
금의 정원, 목의 정원, 수직 정원, 물의 정원, 어스 정원(흙의 정원), 숲의 정원, 명상 정원(돌의 정원)과 평온의 정원 등 음양오행의 자연적 요소를 하나하나 정원으로 승화시켜 모두 공간에 구현될 수 있도록

1 커뮤니티 로비 라운지에서 바라본 정원 연출. **2,3** 오피스박김 사무실과 작업 중인 박윤진 대표.
4 위에서 바라본 라브르 27의 조경 면적. 키 큰 나무가 외관을 둘러싼 숲의 정원을 조성한다.

만들었습니다. 라브르 27 안의 여덟 개 정원은 작은 공간이지만 단지 내에서 뚜렷한 아이덴티티가 보이는 곳이죠. 물의 현상학, 돌의 안정과 미학 등 다채로운 형태의 조경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풍수 요소를 단순히 관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간에 적용했습니다. 더욱 자연을 가깝게 감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각 정원의 개별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이 음양오행에 근거해 조성한 여덟 개 정원을 연속적인 보행과 흐름 속에서 입체적으로 경험하길 바랍니다.

“주거 여건에 따라 테라스하우스, 가든하우스, 펜트하우스에 각기 차별화된 조경 전략을 적용했습니다.”

테라스하우스는 실내와 외부를 중재하는 흥미로운 중간 공간입니다. 라브르 27은 넓고 높은 지역에 자리하다 보니 전망과 테라스가 중요했죠. 테라스하우스는 전면의 큰 테라스가 공간을 연장해 실내부터 외부까지 연속되는 느낌을 주는데요, 실내도 외부 공간도 아닌 중층적 공간에서 편하게 누워 쉴 수도 있고, 햇빛을 즐기거나 빗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테라스하우스에 딸린 개별 공간 말고도 테라스에서 내다보이는 중간 숲이 있어 개인 공간에서도 전체 공간을 경험할 수 있죠.

가든하우스는 평수도 넓고 개개인의 유닛도 나뉘어 있기 때문에 1층부와 상층부 두 곳에 굉장히 특별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1층부에는 수 공간을 지나서 입구에 들어설 때 작지만 자연과 깊이 교감할 수 있는 이끼 정원과 음지형 흙 정원이 있습니다. 매우 아늑하고 프라이빗한 공간이죠. 상층부는 하늘이 열려 있어 햇빛을 만끽할 수 있고, 풀이 있어 수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 정원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합니다. 반려견을 산책시킬 수 있을 만큼 넓은 곳이기도 하지요. 강남 도심 한복판에 굉장히 큰 평형의 수직 정원이자 입체 정원이 옥상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펜트하우스는 건축 연면적과 동일한 크기의 대규모 정원을 조성합니다. 굉장히 럭셔리하고, 50명 이상의 사람을 초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베뉴이지요. 웬만한 중소 호텔의 어메니티를 혼자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외부 간섭 없이 익스트림한 자연을 경험하도록 조성한 곳에서 자신만의 온전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파티 공간이면서 아주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외부 간섭 없이 온전히 쉴 수 있는 프라이빗 네이처가 핵심입니다.”

온전히 쉴 수 있는 나만의 정원, 즉 프라이빗 네이처는 대부분 펜트하우스와 가든하우스에 구현했습니다. 가든하우스의 루프톱과 펜트하우스에서 가장 좋은 전망을 누리며 혼자만의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옥상정원과 월 가든, 그리고 인피니티 풀을 비롯한 여러 수영 시설을 제안했습니다.

“생태 여건에 맞는 식재, 계절감, 귀중한 수종이 식재 선택의 기준이었습니다.”

식재는 커다란 자연의 경험을 섬세하기 전달하기 위해 굉장히 고심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라브르 27 조경에서 첫 번째 식재 선택 기준은 ‘생태 여건에 잘 맞는 자연적 식재인가’였습니다. 햇빛의 여건과 토양의 조건에 맞는 수종을 택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계절감이 잘 드러나는 수종,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식재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나무(이른바 ‘좋은 나무’라고 부르는 수종)를 선택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든하우스와 테라스하우스를 중재하는 긴 선형의 숲이 있는데요, 이곳엔 참나무 계통과 금송 등 상록과 활엽이 섞여 있어 계절감이 드러나는 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하이엔드 주거 신에서 라브르 27은 전환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은 하이엔드 주거 문화가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5년이나 10년 뒤 점차 성숙할 것으로 봅니다. 라브르 27은 하이엔드 주거 환경에서 모멘텀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면적이 넓고, 비싼 재료를 사용한 집이 아니라, ‘자연’을 핵심 개념으로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관행적으로 나무와 풀·꽃을 아름답게 심고 가꾸고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물과 바람 등 입체적 감각을 향유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정말 본질적인 자연을 구현해야 한다는 점에서 조경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라브르 27은 표피적인 장식 조경이 아닌, 실제 입주민이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정원을 구현할 수 있어요. 오피스박김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자연을 찾고 선택해 구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살고 싶은 곳, 즉 진정한 하이엔드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피스박김은 박윤진과 김정윤 두 조경 디자이너가 이끄는 조경 디자인 회사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 설계대학원을 졸업한 박윤진, 김정윤 디자이너는 2004년 네덜란드에서 시작해 현재는 서울과 보스턴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미국 하버드 대학교 디자인 스쿨의 교수로 재직 중인 두 디자이너는 현실에 대한 반성과 사유에서 시작한 조경 디자인으로 국내외 다양한 곳에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현대자동차 연수원 외부 공간 설계, 에어부산 신사옥 조경 설계 및 시공, 뉴욕 브롱크스의 뉴욕 보태니컬 가든, 코넬 대학교의 생태 습지원과 MIT 공과대학교의 기숙사, 서울공예박물관 외부 공간 설계, 송도 트리플스트리트 쇼핑몰 외부 공간 설계 등이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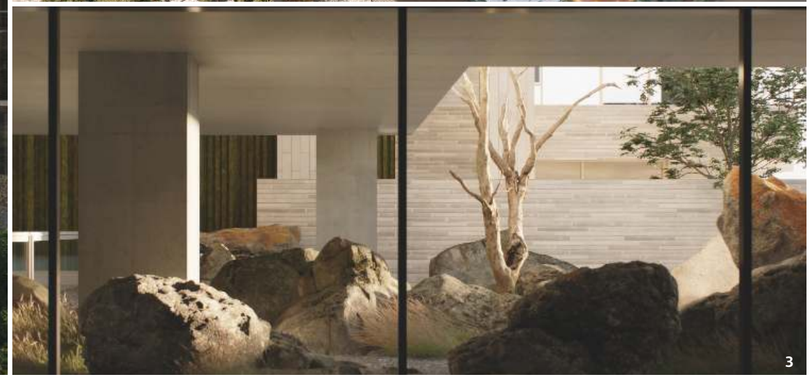
가든하우스의 소셜라이징 키친. 주방에서도 숲속에 있는 것 같은 평온함을 느낄 수 있다.

가든하우스 F 1층에 위치한 프라이빗 패밀리 살롱. 온전한 자연의 혜택이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편안한 집을 만들기 위해 작은 공간에도 자연을 입체적으로 구현했다.

가든하우스 루프톱에 위치한 프라이빗 룸. 강남 도심 한복판 옥상에 큰 평형의 입체 정원을 갖춘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안 시 다를 수 있습니다.

Meditative & Healing Gardens



물과 바람이 흐르게 하는 풍수와 '목화토금수'로 대변되는 음양오행적 요소를 결합해 입체적 조경을 완성했다. 명상 정원, 평온의 정원, 금의 정원, 목의 정원, 수직 정원, 물의 정원, 어스 정원, 숲의 정원 등 각각의 특성을 반영한 여덟 개 정원은 때론 프라이빗한 나만의 공간으로, 때론 서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유 공간으로 복합적 경험을 선사한다. 집 안에서 밖을 바라보며 사색과 명상에 잠길 때, 천천히 느린 걸음으로 정원과 숲을 산책할 때,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풍경을 고요히 감상할 때 라브르 27의 숲과 정원은 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 움직인다. 도심 한복판에서 문명과 자연의 혜택을 동시에 누리는 진정한 '럭셔리'. 라브르 27의 숲과 정원에 깃든 특별한 가치다.

1 메인 로비에 위치한 어스 정원. **2** 위에서 바라본 금의 정원 모습. **3** 굳건한 돌을 바라보며 개인 운동을 즐기기 좋은 명상 정원.

여덟 개 정원, 그 이상의 풍경

귀갓길에서 마주하는 **숲의 정원**에서부터 안락과 평온의 순간이 시작된다. 숲의 정원은 도심 속 짙은 녹음과 풍성한 숲을 조성해 계절감을 만끽할 수 있는 정원이다. 채광과 환기에 유리한 수종을 식재해 편안하고 따뜻한 무드를 만들어냈으며, 키 큰 나무들과 건물 외관의 조화가 탁월하다.

커뮤니티의 사우나 주변부에 조성한 **평온의 정원**은 사계절 내내 변치 않는 차분한 풍경을 유지한다. 일본의 '선의 정원'과도 유사한 추상적·은유적 개념을 형상화한 공간이다. 이러한 축경식 정원은 평온의 정원과 함께 **명상 정원(돌의 정원)**에서 잘 드러난다. 돌의 안정감과 독특한 질감을 모티프로 한 명상 정원은 정적인 분위기로 사색과 명상을 권한다.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돌을 감상하며 요가나 개인 운동을 즐기는 것도 가능하다.

어스 정원은 여러 형태의 흥미로운 지형을 조성한 '흙의 정원'이다. 크고 작은 마운딩을 만들어 산을 여러 개 겹친 듯한 율동미를 표현하고, 상부를 이끼로 마감해 지형의 미세한 형태를 강조했다. **물의 정원**은 시원한 초록 숲을 연상시키는 수(水) 공간이다. 평소엔 물의 정원을 채운 얕은 물이 주변의 아름다운 경관을 반사하고, 물을 빼면 화려한 파티 장소로 탈바꿈하는 복합 정원이다.

숲은 라브르 27 어디에나 펼쳐진다. 녹색 풀과 나무를 수직으로 조성해 로비에도 숲을 들였다. **수직 정원**은 높은 층고의 로비 뒤쪽에 조성한 '버티컬 그린'이라 부르는 이끼 정원으로, 공간감을 극대화한다. **목의 정원**은 조형적 플랜터와 수직적 나무로 울창한 숲을 조성해 나무 본연의 존재감을 느끼게 해준다.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나무 그늘, 나무 특유의 질감과 청량한 향기, 계절의 흔적이 한데 머무는 정원이다. **금의 정원**은 자연의 경험과 가치를 다양한 형태로 발현하는 대체 자연, 즉 얼터너티브 네이처(Alternative Nature)의 공간. 식물은 없지만 금형 조형물과 수경 시설 같은 요소를 통해 자연을 경험할 수 있다. 또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 창의적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 공간이기도 하다. 계속 바뀌는 이 전시 공간은 외부와 소통하는 색다른 장으로 기능한다.

상기 도면 및 CG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다를 수 있습니다.

The Perfect Finish for a Touch of Luxury

“신은 디테일 안에 있다(God is in the detail).” 20세기를 대표하는 건축가 루트비히 미스 반데어로에의 명언처럼 건축과 디자인의 완성도는 결국 디테일이 결정한다. 라브르 27은 완벽한 디테일을 구현하기 위해 유서 깊은 전통과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한 글로벌 하이엔드 브랜드를 엄선해 마감재에 적용했다. 라브르 27이 까다롭게 선별한 분야별 명품 리빙 브랜드를 소개한다.

GIORGETTI

EGGERSMANN

Kitchen

100% ‘Made and Manufactured in Italy’의 저력, GIORGETTI Italy

1898년 루이지 조르제티(Luigi Giorgetti)가 이탈리아 메다(Meda)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한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이다. 4대에 걸쳐 지속 가능하고 견고한 나무 소재에 스톤·글라스·가죽·메탈 등 현대적 재료를 더한 혁신적 디자인을 선보인다. 100% ‘Made and Manufactured in Italy’를 고수하며 디자인·설계·생산 전 과정을 최고 수준의 기술자와 설비를 통해 진행한다.

죠르제띠는 카를로 콜롬보(Carlo Colombo), 마시모 스콜라리(Massimo Scolari), 로베르토 라체로니(Roberto Lazzeroni) 같은 세계적 건축가 및 디자이너와 컬래버레이션해 예술 작품에 가까운 가구를 선보이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는 죠르제띠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목공예 기술에 디자이너의 독창적 아이디어를 더한 결과물이다. 나무의 질감을 살려 완벽한 곡선과 촉감을 구현한 마시모 스콜라리의 에라스모(Erasmo) 데스크(2009년 작) 같은 작품이 대표적이다.

죠르제띠의 창의적 디자인과 탁월한 기술력의 결정체인 죠르제띠 키친은 브랜드 특유의 장인 정신에 첨단 기술을 결합한 미니멀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목재를 비롯해 금속·유리·가죽 등 여러 종류의 마감재를 다양하게 맞춤 구성할 수 있어 완성도 높은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1백15년 전통의 독일 비스포크 키친 브랜드, EGGERSMANN Germany

1908년 설립한 1백15년 전통의 독일 명품 주방 브랜드 에거스만. 1백 년 넘게 이어온 장인 정신에 혁신 기술을 집약한 디자인을 접목해 전 세계 하이엔드 키친 시장을 이끌고 있다. 상판과 도어의 소재 매치, 동선을 배려한 가전 탑재, 마감재에 어울리는 액세서리 배치 등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 쓴 디자인과 천연 석재·우드·스틸 등의 소재를 정밀하게 마감하는 기술력이 최대 강점이다.

ARCLINEA

대면형 주방에 키 큰 수납장을 설치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수납장 안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도어로 마감하는 히든 키친 인테리어의 원조 격으로, 매 시즌 흔하지 않은 소재를 믹스 매치한 미니멀한 디자인으로 트렌드를 선도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주방 가구 브랜드이지만, 어떤 브랜드보다도 앞선 기술력과 혁신적 디자인을 선보이는 에거스만은 2010년 시카고 아테나에움 건축 디자인 박물관(The Chicago Athenaeum Museum of Architecture and Design)이 주관하는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굿 디자인(Good Design)상’을 수상, 브랜드의 저력을 입증했다.

1백여 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키친 솔루션, ARCLINEA Italy

1925년 실비오 포르투나 세니오르(Silvio Fortuna Senior)가 창립한 1백여 년 전통의 이탈리아 하이엔드 키친 브랜드. 다양한 모듈식 주방 디자인을 제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적 디자이너 안토니오 치테리오(Antonio Citterio)가 30여 년간 수석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혁신적 주방 가구 디자인을 선보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외에도 카를로 바르톨리(Carlo Bartoli), 로베르토 파미오(Roberto Pamio), 엔초 베르티(Enzo Berti) 같은 유명 디자이너와 컬래버레이션해 다양한 디자인적 실험을 거듭했다. 특히 주력 제품인 리넘 에 라피스(Lignum et Lapis) 아일랜드의 경우, 한쪽에선 음식을 준비하고, 맞은편에선 음식을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해 기능성과 사교성을 완비한 아일랜드 키친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주방 도구와 조리용품의 배치, 요리 동선에 최적화한 레이아웃이 강점이다. 숙련된 장인 정신과 주방의 본질에 관한 지속적 탐구를 통해 실제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한 근본적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Dress Room

완벽한 디테일의 알루미늄·유리 가공 시스템, RIMADESIO Italy

1956년 루이지 리볼디(Luigi Riboldi)와 프란체스코 말베르티(Francesco Malberti)가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지역의 도시 데시오(Desio)에서 처음 시작한 브랜드. 브랜드명인 리마데시오는 창업자 두 명의 이름과 지역명을 합해서 만들었다. 60년 이상 쌓아온 알루미늄과 유리 가공 기술력을 보유한 리마데시오는 자타 공인 전 세계 No.1 브랜드이다. 알루미늄·유리·가죽 등의 재료부터 디자인·제조 공정에 이르기까지 100% ‘Made in Italy’를 고수한다. 세계적 알루미늄 프레임 기술과 견고한 유리의 조합이 돋보이는 슬라이딩 도어를 최초로 선보였고, 이를 더욱 발전시켜 간결한 디자인에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슬라이딩 도어를 개발했다. 이후 드레스룸, 리빙 가구 등으로 영역을 확장해 토털 리빙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리마데시오의 워크 인 클로짓(드레스룸 시스템)은

RIMADESIO

LUDOVICA MASCHERONI

최고의 디테일과 기술이 집약된 독보적 시스템 가구로 차별화한 미니멀 디자인을 구현한다. 모듈식 시스템을 적용해 관리하기 쉽고, 스타일이 탁월한 게 강점이다. 리마데시오는 이외에도 세계적 디자이너 주세페 바부소(Giuseppe Bavuso)와 협업해 다양한 가구 제품도 선보이고 있다.

시간을 뛰어넘는 100% 테일러메이드의 가치,
LUDOVICA MASCHERONI Italy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 디자인이 특징인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 루도비카 마스케로니. 최고급 목재에 브랜드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가죽 소재를 덧댄 독창적 디자인의 가구로 전 세계 상위 0.01%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가구, 주방 가구, 시스템 가구, 소품 등 집 안의 모든 내장재부터 오브제까지 고객의 품격과 니즈에 맞는 완벽한 제품을 제안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특히 기능성과 예술성의 조화가 돋보이는 드레스룸 시스템은 내부에 장인의 손바느질로 제작한 가죽을 더해 어떤 아이템이든 손상 없이 보관할 수 있다. 손으로 깎아 마감한 우드 코너 프레임, 재봉틀로 제작한 가죽 스티치 등 완벽한 디테일이 강점이다. 청동색 유리, 클로버 패턴을 타공 가공한 가죽, 실크와 캐시미어로 감싼 후면 패널 등 독특한 마감재로 공간의 완성도를 높인다.

DORNBRACHT

TOTO

Bath/ Sanitary/ Flooring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독일 프리미엄 수전 브랜드,
DORNBRACHT Germany
혁신적 디자인으로 유명한 도른브라흐트는 1950년 설립한 독일 명품 수전 브랜드이다. 브랜드 슬로건 'Leading Designs for Architecture'에서 오랜 세월 쌓아온 기술력과 디자인에 대한 도른브라흐트의 자신감이 엿보인다. 명확한 선, 정확한 각도로 완성한 독창적 디자인의 수전은 개성이 넘치면서도 기능성이 뛰어나다. 개인의 취향과 공간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마감재와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 개성 넘치는 욕실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다.

욕실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글로벌 리딩 브랜드, TOTO Japan
1917년 설립한 1백여 년 전통의 글로벌 리딩 브랜드. 1980년 전 세계 욕실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꾼 전자식 비데를 선보인 것으로 유명하다. 세계 유수의 호텔 및 프리미엄 주거 공간에 욕실용품을 제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졌다. 최근에는 친환경·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등을 결합한 차별화한 기술력으로 손 세정용 자동 수전 등 혁신적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 스마트한 욕실 문화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다.

JUNG

LISTONE GIORDANO

예술이 된 No.1 대리석 브랜드, SALVATORI Italy
살바토리는 1946년 설립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하이엔드 석재 브랜드이다. 최고급 천연석에 예술적 감각을 더해 작품 같은 제품을 제안한다. 카라라 대리석의 본고장이자 희소가치가 높은 석재를 생산하는 토스카나 북부의 자체 채석장에서 최상의 원재료를 선별한 후 다양한 패턴과 텍스처, 사이즈로 디자인한다. 석재 선별 과정부터 제작까지 80여 년간 쌓아온 노하우를 집약한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제품을 100% 'Made in Italy'로 선보인다. 피에로 리소니(Piero Lissoni), 존 포슨(John Pawson), 구마 겐고(Kengo Kuma) 같은 세계적 디자이너 및 건축가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유니크한 대리석 제품을 다수 선보인 바 있다.

독보적 기술력의 친환경 원목 마루 브랜드,
LISTONE GIORDANO Italy
세계 최초로 엔지니어드 플로어링 기술을 개발한 이탈리아의 명품 원목 마루 브랜드. 프랑스 부르고뉴 폰테인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오크를 사용하며, 제재소를 직접 운영해 퀄리티 관리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폰테인 오크는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며 나무가 잘 자라도록 잡초 등을 솎아내는 스폰테니어스 공법을 적용해 조직이 치밀하고 촘촘하다. 100% 'Made in Italy'로, 원목 건조부터 피니싱에 이르기까지 장인의 숙련된 스킬로 전 공정을 엄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밀성과 안정성이 뛰어나다. 자하 하디드(Zaha Hadid), 리처드 마이어(Richard Meier) 같은 세계적 건축가가 사랑한 원목 마루의 대명사로, 한국의 온돌 환경에서도 이미 그 성능이 검증된 바 있다. 내구성과 방음성 역시 탁월하다.

Home Appliance

3백40년 전통의 독일 하이엔드 빌트인 가전,
GAGGENAU Germany
1683년 철강 제품을 만드는 대장간에서 시작한 3백40년 역사의 독일 빌트인 가전으로, 전 세계 1% VVIP가 사랑하는 하이엔드 브랜드이다. 하이엔드 가전으로서 역사가 시작된 건 1961년 사업가 게오르크 폰 블랑퀴트(Georg von Blanquet)이 가게나우를 인수하면서부터다. 그는 '빌트인 가전'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토대로 가게나우를 세계 최초의 빌트인 가전 브랜드로 성장시켰고, 이후 가게나우는 'The Difference is Gaggenau'라는 모토를 기반으로 전 세계 빌트인 주방 가전의 혁신을 이끌고 있다. 가게나우의 모든 제품은 최고급 자재 및 숙련된 장인의 수작업과 최첨단 기술을 결합해 제작하며, 제품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인 수가공 생산 시스템으로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함이 특징이다. 세계 최초의 90cm 빌트인 오븐과 전기 그릴, 얼음 제조가 가능한 최초의 빌트인 냉장·냉동고 등은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 전시되었을 정도로 탁월한 예술성을 인정받았다.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에도 가게나우의 냉장고가 소품으로 등장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계가 인정한 독일 명품 스마트 홈 솔루션, JUNG Germany
1912년 설립한 1백11년 전통의 독일 프리미엄 스마트 홈 솔루션 브랜드 융. 미니멀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프리미엄 스위치 배선 기구, 조명·온도·멀티미디어·블라인드 셔터 제어, 터치스크린 내장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일반 배선 기구부터 스마트 홈·빌딩 전용 무선 자동 제어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은 엄격한 테스트를 거쳐 완성하며, 고품질의 제품·솔루션을 유지하기 위해 'Made in Germany'를 원칙으로 한다.

커스터마이징 과정에서 부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